

회원사동정

포스코

* 중국 스테인리스냉연 품질 인증 *

장가항포항불수강(이하 ZPSS)의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이 중국 정부로부터 국가면검제품 인증을 획득하며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았다. 국가면검제품 인증은 중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품질인증제도 가운데 최고의 영예로운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은 물론 품질관리체계도 엄격히 심사해 심사를 통과한 우수한 제품에 한해서만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면검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품질검사나 생산·유통·수출과 관련된 각종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더욱이 지금까지 이 같은 인증을 획득한 철강회사 가운데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으로 국가면검제품 인증을 획득한 회사는 ZPSS가 처음이다.

그 동안 ZPSS는 1999년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준공 후 『가장 우수한 제품이 고객을 이끈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 확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한데 뭉쳐 땀과 열정을 기울여 왔다.

ZPSS는 이번 면검제품 인증을 계기로 제품의 포장과 라벨 등에 면검제품 표시를 추가해 고객사들에 대한 ZPSS 제품의 품질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판매력을 한층 강화하고 신규 고객사 발굴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세계 최초, 바 접합 방식 적용 *

포항제철소는 세계 최초로 선행과 후행 두 개의 끝 부분(바)을 중첩해 열간압연하는 연연속압연에 성공한 데 이어 핫코일 10장을 연연속압연하는 데 성공했다. 연연속설비는 열연제품 소재인 슬래브를 1차 압연해 두께 25~35mm의 바 상태로 만든 뒤 최대 25개까지 접합해 연속으로 압연하는 기술로 포스코는 고유의 접합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 접합기, 바를 감는 코일박스과 고속절단기 등 연연속설비를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에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성공한 시험압연은 코일 두께 2.0mm의 소재 10장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코일 길이는 12km에 이른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전단변형 접합 방식은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용접 방식과 달리 두 개

의 바 끝부분을 겹친 후 나이프로 비스듬히 고속으로 잘라 잘린 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단열을 이용해 접합하는 고상 접합방식이다.

한 개 바가 압연이 끝나고 다음 번 바를 압연할 때까지 30~40초를 대기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작업이 불과 1초 내외에 완료되는 등 작업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생산성 향상은 물론 품질 향상과 각종 설비사고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작업 시 처음과 끝 부분에서 발생하는 품질 불량과 스크랩 손실이 줄어들며 일반 열연공장에서는 압연이 어려운 넓이와 두께의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다.

한편 열연부는 압연 기술 개발을 위해 엔지니어가 각자 개발한 기술을 발표, 정보를 공유하며 즐겁고 열린 조직문화를 위해 계층별 벽이 없는 대화를 시행하고 있다.

* 베트남 냉연공장, 120만톤으로 확대 *

포스코가 『베트남프로젝트』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1단계 냉연공장의 설비규모를 확대하며 동남아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장선점에 나선다.

베트남프로젝트는 포스코가 베트남 내 최대 철강수요 지역이자 경제중심지인 호치민시 인근 봉타우성에 열연·냉연공장을 설립하는 글로벌 투자사업. 포스코는 이곳에 짓기로 한 1단계 냉연공장 설비 규모를 당초 70만톤에서 120만톤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비도 종전 대비 1억 3000만 달러 많은 4억 9100만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압연기 타입도 산세압연라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생산능력과 원가·품질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포스코의 1단계 냉연공장 설비 규모가 변경된 데에는 최근 베트남 내 철강 수급 상황이 맞물려 있다. 빈다코 등 베트남 철강사들의 투자계획이 잇달아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반면 철강 수요는 빠른 경제성장과 맞물려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황 변화에 대해 포스코는 오히려 생산설비를 확대, 경쟁사들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 지역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는 1단계 냉연공장이 준공되고 2단계 연산 300만톤 열연공장까지 신설되면 중국과 인도 등 해외 생산·판매 기지들과 연계해 본격적인 글로벌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가 이 같은 전략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데에는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으로 작용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포스코가 베트남 내 법인 설립은 물론 열연·냉연공장 설립까지 가능하도록 투자

허가서를 한꺼번에 승인했으며 응웬 쩐 중 베트남 총리는 이구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 리튬 2차 전지 ‘음극 신소재’ 개발 *

주석이나 실리콘 같은 물질에서 나타나는 부피 팽창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면서도 탄소음극 2배 용량의 우수한 수명을 지닌 음극 신소재(SnP0.94)를 합성하는데 성공했다.

포항가속기연구소 김민규 박사와 금오공대 응용화학과 조재필 교수팀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신소재는 200nm 크기의 단결정체로 포항방사광가속기의 X선 흡수분광법을 이용해 개발됐다. 포항가속기연구소는 LG화학기술원 배터리연구소와 공동으로 국내 특허출원을 완료했고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리튬 2차 전지 핵심소재는 정부가 선정한 10대 신 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연간 15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모바일 시대의 고부가가치 품목이다 이 소재는 우리나라가 에너지부문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제2호 후판전용 로로선 취항 *

포스코가 울산 현대중공업에 공급하는 후판제품을 수송할 전용 로로선 『일신프린세스호』를 취항시킴에 따라 고객납기와 운송품질 등에서 한층 진보한 선진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스코는 포항항 5부두에서 제2호 후판 로로선 『일신프린세스호』 취항식을 가졌다. 지난 2004년 취항한 제1호 후판 로로선 『동방에이스호』에 이어 두 번째다.

후판전용 로로선은 장당 3~5톤짜리 후판제품 2, 3장을 크레인으로 일일이 선적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 후판제품 50~80장을 한꺼번에 적재한 적재함을 전용차량을 이용해 최대 20개까지 선적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선박이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기상 요인으로 연간 80일 정도 하역작업을 할 수 없었던 데 비해 로로선은 날씨와 상관없이 365일 전천후 작업이 가능해 작업효율 향상과 함께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인 납기 대응도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하역을 포함한 운송·회항 기간이 종전 9일에서 2일로 줄어들고 척당 적재량도 3000톤에서 최대 4500톤으로 증가함으로써 연간 15억원의 물류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이날 취항식에서 윤석만 사장은 “후판전용 로로선 취항으로 신속 정확하게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함으로써 운

송품질 향상은 물론 납기 단축,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고객사의 재고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물류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고객사의 원가절감과 수익제고에 기여하며 국가 물류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로로선 수송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며 고객 중심의 운송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 단일공장 세계최대 변압기 생산체제 구축 *

현대중공업이 생산용량 1만5,000MVA의 변압기 공장을 준공하고,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6만MVA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6만MVA는 우리나라의 전 발전소 총 설비용량(6만5,000MVA)과 맞먹는 수치다.

이 공장은 총 1,500평 규모로 약 300억원을 투입해 완공한 것으로 각종 생산설비를 비롯해 방진설비와 진공 건조로 등 최신장비를 갖췄으며 최대전압 500kV급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총 1만 5,000평 규모의 중전기 공장을 보유하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변압기 제작설비 증설과 함께 고압차단기공장, 회전기공장 증축 등 생산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연간 7만MVA 생산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변압기 분야에서 지난해 국내업체 사상 최대 규모인 1억9,000만 달러(전년대비 46% 증가)를 수출했으며 최근에는 변압기 첫 생산 이후 미국 전체 전력 공급량에 해당하는 생산누계 40만MVA를 달성하기도 하는 등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중전기 분야에서 미주시장 진출이래 북미와 유럽, 중동 등 전 세계에 걸쳐 변압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친환경 변압기 개발에 앞장서는 등 끊임없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로 세계 5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강력한 파워 5톤급 굴삭기 시판 *

현대중공업이 작업 성능과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연료 소모량을 대폭 줄인 5톤급 신 모델 소형굴삭기를 개발, 본격적인 시판에 나섰다.

이번에 출시된 굴삭기는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신유압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험지 작업조건에서

도 적합하도록 주행성과 선회능력을 향상시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 것이 큰 특징이다.

새롭게 적용된 이 유압시스템은 중량물 인양 상태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주행직진방식」과 험한 지형의 주행에 유리한 「주행독립방식」을 동시에 적용시켜 전천후 작업 성능을 발휘하며 기존제품 대비 복합주행능력을 30% 향상시켰고 선회능력 8.5% 상승, 연료소모량은 8% 줄인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또한 CPU 내장형 모니터는 운전자에게 장비 상태와 관련된 엔진 회전수, 엔진냉각수, 연료량 및 모든 전기 관련 사항 등 통합가동정보를 제공해 최상의 작업효율을 발휘할 뿐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 내장 마이크로컴퓨터를 통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안락성을 고려하여 열선내장형 최고급 서스펜션 시트를 적용했으며 고급 인테리어와 동급 최고의 운전 공간 확보, 대용량 에어컨, 선바이저, 사이드윈도우 등을 기본형으로 장착하여 운전자의 작업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 저소음형 머플러를 채택하여 소음을 감소시켰고 머플러 외부에 단열재 및 보호커버 적용으로 운전자의 안전성도 더욱 향상시켰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004년 출시이후 명품 굴삭기로 인지도를 높여온 현대 5톤 굴삭기의 브랜드 파워를 이번 신 모델 출시를 통해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UAE서 사상최대 해양설비 계약 ***

현대중공업이 해양설비 사상 단일계약으로는 세계 최대인 16억불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아랍에미리트의 합작석유회사인 아드마음코와 초대형 해양설비 공사에 대한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사는 아부다비 인근 해상의 움사이프 유전지대에 총중량 4만 톤의 고정식 플랫폼 3기와 해저파이프라인 등을 2010년까지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하루 30만 배럴의 원유와 10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주는 아랍에미리트가 해양설비 공사를 자국 업체에게만 발주했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외국회사와 계약을 맺은 최초의 공사로 아랍에미리트 현지 및 관련 업계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아랍에미리트의 현지 업체인 NPCC사가 프랑스 해양 전문회사와 맺은 컨소시엄과 시종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발주처로부터 뛰어난 기술력을 높이 평가받아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공사 전체를

수행하는 일괄도급계약방식으로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중동 경제의 견인차로 떠오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일일 24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OPEC 내 4위의 산유국으로 2010년까지 원유 및 가스 설비 분야에서 총 200억불 규모의 공사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그동안 해양설비 수행실적과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대규모 후속 공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 친환경 유동층 보일러 해외 첫 수주 ***

두산중공업은 해외에서 최초로 친환경 유동층 보일러를 적용한 석탄 화력발전소를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태국 현지에서 발주처인 글로우 에너지 사 피터 터모트 사장과 두산중공업 홍성은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태국의 방콕 동남쪽에 위치한 라용 맵타팟 지역에 1억7천만 달러 상당의 115MW급 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태국 글로우 화력발전소는 맵타팟 지역 내의 대규모 공단에 산업용 전력을 공급할 예정으로 기존 화력발전소에 비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인 유동층 보일러를 적용한 친환경 발전소이다.

두산중공업은 이 공사를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설치,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EPC 방식으로 자체 수행해 오는 2009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이 유동층 보일러를 적용한 화력발전소를 EPC방식으로 해외에서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국에는 그 동안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LNG가스를 연료로 하는 복합 화력발전소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석유나 LNG가스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을 사용하는 대형 화력발전소 건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향후 5년간 15,000MW, 약 150억 달러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중공업 홍성은 부사장은 “태국 발전시장은 그 동안 해외 유수 기업만이 거의 독점해왔다”며 “글로우 발전소 수주를 계기로 동남아 지역에서 기존 복합화력 발전소뿐 아니라 석탄화력 발전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파키스탄 화력발전시장 국내 첫 진출 *

두산중공업이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파키스탄 화력 발전소 시장에 진출했다.

두산중공업은 서울사무소에서 발주처인 파우지 파운데이션사 사이드 아리프 하산 회장과 두산중공업 홍성은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다하르키 지역에 1억5천만 달러 상당의 175MW급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다하르키 복합 화력발전소는 파키스탄 남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는 플랜트로서 두산중공업은 이 공사를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설치,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는 EPC 방식으로 일괄 수행해 오는 2009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파키스탄은 지난 10년간 기존 발전소를 유지 보수하는 방식으로 전력수요를 충당해 왔으나 최근 연 8%대에 이르는 경제성장과 함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민자발전 위주로 발전시설을 확대키 위해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향후 2012년까지 파키스탄에서는 전력수요 15GW, 약 100억불 규모의 신규 발전소 건설이 예상되며 두산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복합 화력뿐 아니라 세계 4위의 석탄 매장량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시장 공략에도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 베트남 생산기지 착공식 *

두산은 베트남 현지에서 한·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생산기지 착공식을 가졌다. 베트남 생산기지가 들어설 중동부 해안의 쯩꿏 공단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베트남 고위관계자 및 두산그룹 고위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베트남의 개혁정책의 상징으로 알려진 도 트어이 전 공산당 서기장의 축하화환을 팜 딘 코이 팡아이성 공산당 서기장이 박용만 부회장에게 대신 전달했다

베트남 생산기지는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두산 Vina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공사에 착수해 2008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2009년 초부터 중동 및 동남아 시장에 공급할 담수설비, 복합화력발전소, 운반설비 등을 생산하게 된다.

박용만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동, 인도, 동남아 등 해외 수주물량 급증에 따라 해외 생산기지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베트남이 지니고 있는 높은 국민적 자긍심과 성장 잠재력 그리고 뛰어난 인재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도 트어이 전 공산당 서기장이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을 방문했을 때 베트남에도 두산중공업 같은 공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소망을 이루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면서 “베트남 현지법인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경영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하는 인재양성 사관학교 역할을 하고 장차 팡아이 지역민의 회사 나아가 베트남 국민의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과 두산메카텍은 지난해 1,800억원을 투자하는 베트남 생산기지를 추진키로 하고 베트남 중동부 해안에 위치한 쯩꿏공단에 30만평의 부지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말 베트남 현지법인인 두산 Vina를 설립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 현대차 인도 공장 “글로벌 품질경영” 이끈다. *

현대차 인도 공장에서 생산된 『베르나』, 『아토스』 등의 모델이 인도와 해외시장에서 각종 자동차 관련 상을 휩쓸면서 현대차 글로벌 품질경영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가 지난해 인도시장에 출시한 베르나는 올해 인도 자동차 전문지 『오버드라이브』의 최고 영예인 “올해 최고의 차”수상을 시작으로 경제뉴스 전문 채널인 CNBC와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가 공동으로 선정한 “최고 가치 모델 상”과 뉴스전문 채널인 NDTV사로부터 “최고 중형차”상을 수상하면서 2007년 인도 자동차 시상식장을 휩쓸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 지로부터 “최고 성능의 자동차”로 선정됐다.

현대차는 베르나가 지난해 인도시장 출시 직후 2주 만에 5천대 판매라는 신기록을 세운데 이어 최근 연이은 호평을 받음으로써 올해에도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베르나가 인도 자동차 전문지인 오버드라이브에서 받은 “올해 최고의 차”상은 동급 모델인 혼다 시티, 시보레 아베오 뿐만 아니라 혼다 시빅, 도요타 캠리 등과 같은 상위 최고 모델들과의 경쟁을 뚫고 수상, 베르나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지난해에는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아토스(인도 현지명: 쌍트로)가 시장조사기관인 제이디 파워사가 실시한 남아공 신차 품질조사결과에서 경차 부문 1위를 차지, 현대차 인도 공장의 뛰어난 품질을 증명했었다

현대차는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성능으로 인도 고객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아토스의 후속 차종을

하반기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글로벌 생산거점의 중요 축인 인도 공장은 현대차가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품질경영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며 “현대차는 뛰어난 품질을 바탕으로 인도시장에서 최고 메이커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 쌍트로 생산을 시작으로 매년 판매 신기록진을 이어온 현대차 인도 공장은 지난해 05년 대비 18.5% 늘어난 총 299,513대를 판매했으며 인도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 18.3%로 2위, 수출 113,399대로 인도 제1의 자동차 수출업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 연말까지 인도에 30만대 규모의 제 2공장을 완공해 60만대 생산, 판매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글로벌메이커들의 각축장인 인도 내수시장에서 항시 시장점유율 20%와 수출 30만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3년 연속 국내 판매 점유율 50% 달성 ***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내수 581,092대, 수출 2,082,906대 총 2,663,998대를 판매하여 전년대비 5.1% 증가한 실적으로 2006년을 마감했다.

지난해 차종별 내수판매를 보면 쏘나타는 총 117,537대를 판매하여 국내 최다판매 1위의 자리를 8년 연속 이어가는 기록을 세우며 명실공히 국내최고 차종임을 입증하였으며 이어서 아반떼가 88,212대로 2위, 그랜저가 84,861대로 3위를 차지하는 등 연간 최다판매 차종 1,2,3위를 휩쓸었다.

또한 현대차는 부동의 베스트셀링카인 쏘나타를 비롯하여 그랜저, 아반떼, 쏘타페, 베라크루즈 등의 국내인기에 힘입어 3년 연속 국내 판매 시장점유율 50%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우는 등 내수시장에서의 현대차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수출도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통한 호평과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을 기반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한 2,082,906대를 기록하였다.

국내공장 수출 선적은 파업의 여파로 7.4% 감소한 1,197,077대를 기록하였지만 해외공장은 미국, 인도, 중국 등의 현지 판매호조로 인해 전년대비 32.1% 증가한 885,829대를 기록하여 해외에서 현대차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도법인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에 상트로, 베르나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총 298,980대를 판매하여 창사이래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미국공장 역시 현지에서 생산된 쏘나타, 쏘타페의 인기로 인해 총 236,178대를 판매하여 현지진출 이후 꾸준한

판매신장으로 미국시장의 성공적 진출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북경공장은 현지에서 아반떼와 쏘나타의 판매호조로 인해 창사이래 최대 실적인 290,011대를 기록하였다.

*** 현대차 앙트라지 07년 최우수 미니밴으로 선정 ***

올해로 25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모터위크 드라이버 초이스 어워즈’에서 현대 앙트라지와 기아 세도나가 ‘최고의 미니밴’으로 선정되었다.

매주 방영되는 미국 PBS방송의 대표 자동차소개 프로그램인 ‘모터위크’는 미국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2007 운전자의 선택’상 선정은 모터위크의 PD, 제작진, 전문 차량평가 위원 등 15명의 평가위원들이 150종 이상의 차량과 트럭 등을 소형차, 고급세단, 컨버터블 등의 분야로 나눠 성능, 기술력, 실용성, 구매가치 등의 항목을 중점 평가하여 최우수 차종을 결정했다. PBS는 1969년 설립된 비영리 방송사로 미국 전 지역에서 방송되고 있는 전국 Network TV이다.

모터위크 프로그램의 호스트인 존 데이비스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뛰어난 품질로 매년 발표하는 신차마다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며 “앙트라지와 세도나는 이와 같은 그들의 높은 품질이 만든 훌륭한 예이다”라고 평가했다.

모터위크 드라이버 초이스 어워즈는 자동차 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심사위원들이 150대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성능, 기술, 실용성, 가치 등을 구매자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 출시된 앙트라지는 지난 11월 미 고속도로 안전협회로부터 미니 밴 차량 중 ‘최고 안전차’로 선정 되는데 이어 컨슈머 리포트지로부터 ‘최우수 추천차종’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평가기관에서 연이어 호평을 받고 있다.

현대차 미 판매법인의 존 크래프치 부사장은 “앙트라지의 넓은 실내공간과, 성능 그리고 동급 최고의 안전성이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현대차 쏘나타가 최우수 가족세단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 세계 최고가 LNG선 4척 11억5천만불 수주 ***

삼성중공업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주된 LNG선

가운데 적재용량이 가장 큰 LNG선 4척을 또 다시 수주하며 LNG선 최고가 수주 기록을 갱신했다.

삼성중공업은 카타르 국영 해운선사인 QGTC사로부터 카타르가스IV프로젝트에 투입될 26만6천m³급 LNG선 4척을 척당 2억8640만 불씩 총 11억 5천여만 불에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LNG선은 길이 345m, 폭 54m, 높이 27m로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대 크기와 최고가 LNG선 기록을 동시에 갱신하며 수주한 선박과 동일한 선형으로 당시 선거는 한 척에 2억8400만 불이었다.

이번에 수주한 LNG선은 화물창에서 자연적으로 기화되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스팀터빈 엔진을 장착해 온 기존 LNG선과 달리 ‘병커C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엔진을 장착한 것이 특징적이다.

디젤엔진은 엔진효율, 경제성, 안전성 등이 검증된 차세대 LNG선 구동방식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4척의 LNG선을 추가함으로써 LNG선의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165척 가운데 54척을 수주해 시장 점유율 33%로 세계 1위 수주 잔량 역시 41척, 93억불로 세계 1위 26만m³급 이상의 초대형 LNG선 14척 가운데 11척을 수주하는 등 LNG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삼성중공업의 이번 LNG선 수주를 끝으로 카타르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빅3와 체결한 LNG선 장기공급계약을 통한 LNG선 발주는 일단락 됐다.

LNG선 장기공급계약이란 카타르가 LNG선을 건조할 도크를 사전에 확보하는 대신 건조기간 중의 환율 하락 및 강제가 인상의 불확실성까지 모두 커버 가능한 원가연동형 방식으로 카타르가스 프로젝트에 사용할 LNG선을 모두 국내 조선 3사에 발주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카타르는 21만m³~26만6천m³급 LNG선 45척, 113억불을 조선 3사에 발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가운데 26만6천m³급 초대형 LNG선 11척, 21만7천m³급 5척, 21만6천m³급 2척 등 총 18척의 LNG선을 약 48억불에 수주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조선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것은 물론 척당 평균선가도 2억6700만불에 달하는 등 지난 3년 간 카타르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실속 있는 영업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선박 167척과 해양 16기 등 총 261억불의 수주잔량을 기록해 34개월 이상의 작업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중공업 김징완 사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잔

량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선 위주의 선별 수주전략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신개념 차세대 선박의 개발을 통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삼성중공업 FPSO,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 ***

삼성중공업의 FPSO가 2006년 하반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FPSO는 해저에서 생산된 원유를 정제 및 저장하며 파이프라인 또는 셔틀탱커를 이용해 육상으로 이송하기 위한 하역설비를 갖추고 있는 부유식 생산설비로서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FPSO 54척 중 13척을 수주해 세계 시장점유율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FPSO가 세계일류 상품으로 선정됨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범용상선, LNG선, 드릴쉽에 이어 세계일류 상품 4종을 확보하게 됐다.

세계일류상품이란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육성하고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충해 미래의 안정된 수출증진을 도모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산업자원부가 선정 발표한다.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이 전 세계 5위 이내 및 10%이상, 해당품목 시장규모 연 5천만불 이상, 수출규모 500만불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특히 삼성중공업의 FPSO는 기존 고정식 FPSO가 수십 년간 한곳에 위치해 비교적 온화한 해역에 투입되는 반면 거친 파도와 혹한 그리고 유빙을 견딜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연근해지역 원유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최근의 고유가에 따라 심해지역 유전개발의 손익이 확보됨에 따라 대형 오일메이저들이 심해유전개발용 드릴쉽 및 FPSO 등의 해양설비 발주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삼성중, 선박 60척 연속 무결함 인도기록 달성 ***

삼성중공업은 미국 웨브론쉬핑사의 10만5천톤급 유조선을 인도함으로써 05년 10월 이후 선박 60척 연속 무결함 인도 및 평균 40일 조기건조 등의 대기록을 수립했으며 이로 인해 선주들의 감사편지와 사례 등이 답지고 있다.

무결함 선박이란 인도전 선주사 및 조선사가 참여한 최종점검에서 품질문제에 관해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는 선박, 고객 불만 영인 선박을 말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5년 10월, 품질 지적이 단 한 건이라도 나올 경우 선박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품질 마지노선언」을 선포하여 세계 조선해운업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실제로 인도를 연기하게 되면 인도 시에 받는

건조대금 입금도 같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실이 막대하지만 삼성중공업은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최고 품질을 통한 고객신뢰 확보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47척과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인도한 선박 7척 등 「품질 마지노선언」 이후 60척 모두 무결함 인도, 계약일보다 평균 40일 조기인도 등 조선업계로서는 전례 없는 기록을 수립 중에 있다.

이날 인도식에 앞서 선주인 웨브론쉬핑사 마이클 카튜 사장은 삼성의 안전관리와 선박품질에 대해 극찬하는 감사편지를 손수 작성해 김정완 사장에게 전달했다. 카튜사장은 이 편지에서 5척의 웨브론사 유조선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보여준 140만 시간 완전무사고를 이룬 탁월한 안전관리 능력, 잦은 사양변경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는 완벽품질 등을 극찬했다.

조선업체들이 선주 사로부터 받는 감사편지는 통상 선박 건조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조선소에 파견된 현장 최고책임자 명의로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와 같이 선주사 사장으로부터 직접 편지를 받은 것은 삼성중공업 최초의 사례로 고객입장에서 최고의 예를 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이 선주 사로부터 받은 감사편지는 올 들어서만 벌써 7통. 홍콩 OOCL사, 말레이시아 MISC사, 중국 CSG사, 터키 GEDEN사 등 올해 인도한 모든 선박이 이에 해당되며 작년에 받은 감사편지 22통의 3분의 1을 불과 한달새 받게 돼 모든 선주들이 삼성의 최고품질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최근 75만 배럴급 FPSO를 인도 받은 미국의 모덱사는 최고품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박건조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훈훈한 사례를 연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기가 한껏 고무됐다.

이처럼 감사편지 등의 사례가 답지하고 있는 것은 완벽한 품질, 안전한 작업, 납기 단축 등 소위 「고객만족 3박자」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중공업이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용접 및 도장실명제를 비롯한 품질실명제와 작업자 개개인별 맞춤형 품질교육, 고객체감 불량률 제도를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 등 품질혁신 노력과 더불어 전임직원 대상의 사이버 안전교육, 지역별 안전담당자 제도, 무재해 인센티브 부여 등 완벽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 김정완 사장은 “고객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품질과 안전 수준을 달성해야

만 고객을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다”며 “한 번 삼성에 선박을 맡긴 선주는 반드시 다시 찾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 나이지리아 국영 해운회사 설립 참여 *

대우조선해양은 나이지리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엔네피 시사와 합작 해운회사를 설립한다. 해운회사의 명칭은 나이지리아와 대우의 이름을 합친 『나이다스사』로 할 예정이다.

합작해운회사 설립은 대우조선해양에게는 나이지리아의 해양유전 사업에서 개발 생산설비 제작, 운송에까지 참여하는 업체가 되었다는 점에 나이지리아는 자국 물량을 자국선박으로 운송함으로써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일으켜 국가경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할 해운회사의 지분구조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나이지리아의 정책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49%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51%는 엔네피 시사가 갖게 되며 대우조선해양이 선박의 운용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맡고 엔네피시사는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는 원유 운송물량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회사의 초기 자본금은 1천만 달러다.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은 “이번 해운사업 진출은 대우조선해양이 추구하는 사업 다각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나이지리아를 물류, 해양제작,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회사의 전략적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를 동반자로 인식하며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국내기업들도 해양 유전개발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도 최근 양국 정상 상호 방문으로 경제 협력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며 급물살을 타고 성사되었다.

이 사업은 이미 운송할 화물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운송 서비스 네트워크만 잘 준비한다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박 운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나이지리아라는 국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현지사가 아닌 제 3국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회사는 초기에는 엔네피시사가 해외에 수출하는 원유를 운송할 계획이나 향후 액화천연가스, 석유 정제제

품의 수입, 건화물, 컨테이너 등 연 근해 해운 그리고 육상 물류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 회사의 매출은 최고 1조2천억 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을 보면 나이지리아는 국제무역의 90%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는 연간 1억8천만톤, 68억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이 수익의 90% 이상이 나이지리아가 아닌 외국기업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국가 자체적으로 해상운송을 위한 회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나이지리아 GDP의 45%,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석유와 가스사업도 해상운송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해운회사를 설립 운영하기에는 내부적인 경험과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파트너를 찾게 되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2005년 나이지리아 심해유전 2곳의 개발권을 획득하였으며 나이지리아 서부 아그바미 해상유전에 11억5천만달러 상당의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하역설비를 성공리에 제작함으로써 나이지리아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나이지리아의 향후 성장 잠재성을 인식하고 신사업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두 회사의 요구와 전략이 맞아 떨어져 이번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나이다스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97년 루마니아에 설립한 대우망갈리아조선소, 중국의 블록공장, 오만 수리조선소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되는 해외 프로젝트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중장기 비전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점점 가시화 되게 됐다.

* 대우조선해양 컨선 5척 수주, 루마니아에서 건조 *

국내 조선업체들이 지난해 대량 수주로 연초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해외에서 첫 수주의 물꼬를 텃다.

대우조선해양은 대우망갈리아조선소에서 건조할 471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독일의 함부르크 수드사로부터 수주했다. 이 선박들의 가격은 총 약 5억 달러에 달하며 오는 2010년 상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대우망갈리아조선소는 대우조선해양이 1997년 인수한 루마니아 현지 법인이다. 이번 계약에는 1척 더 계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이번 계약은 대우조선해양의 브랜드에 대한 선주들의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영업과 설계, 자재 지원 등을 담당하고 실제 선박 건조는 경쟁력 있는 생산인력을 보유한 대우망갈리아조선소에서 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옥포조선소를 중심으로 전 세계 조선 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중장

기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우망갈리아조선소도 지난해 이번 계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주한 69,000톤급 유조선 3척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선주들로부터 찬사를 들었다. 이 선박은 지금까지 흑해연안에서 건조된 선박 중 가장 큰 선박이었으며 대우망갈리아조선소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됨에 따라 침체됐던 이 지역 경제도 활력을 띄고 있다. 대우망갈리아조선소는 건조선종을 점차 컨테이너선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은 “이번 계약은 국제 분업화를 통해 선주와 모. 자회사가 상호 윈-윈-윈 하게 된 성공적 사례”라며 “대우망갈리아조선소는 컨테이너선이나 중형 유조선 분야에 특화된 유럽 최고의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부르크 수드사는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총 16척의 컨테이너선을 대우망갈리아조선소에도 총 11척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세계 굴지의 컨테이너 전문 운송회사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09미터, 너비 40미터, 깊이 24.2미터로 4,71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22.7노트(약 41Km)로 운항할 수 있다. 대우망갈리아조선소는 현재 25척의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다.

* 새해 첫 수주 테이프 LNG선이 끊었다 *

대우조선해양은 새해 첫 수주로 카타르에서 발주된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을 수주하며 LNG선 건조 강자의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210,100 m3급 초대형 LNG선 4척을 카타르의 국영 가스 운송회사인 QGTC사로부터 수주했다. 또 유럽의 선주로부터 170,000 m3급 LNG선 1척도 수주했다. 이들 선박의 총 가격은 약 12억 2천만 달러에 달하며 대우조선해양은 이 선박 5척 모두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해 2010년 말까지 모두 인도할 예정이다. 특히 『카타르가스 4 프로젝트』에 투입될 선박은 주로 카타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유럽과 미국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주된 235척의 LNG선중 72척을 수주해 시장점유율 30%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주잔량도 현재 39척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은 2004년 6월부터 카타르에서 발주된 53척의 선박 중 26척을 수주하며 LNG선 건조 최고 조선소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특히 대규모 LNG선이 발주된 카타르 프로젝트는 대우조선해양은 사상 처음으로 선가를 자재비와 환율 등에 연동시켜 대

규모 선박을 장기 공급하는 ‘장기간 공급 협약’이라는 방식을 도입해 업계의 화제가 됐으며 21만³과 26만³LNG선 등 초대형 LNG선 설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등 LNG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초로 건조한 초대형 210,100³급 LNG선을 인도해 카타르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원유를 대체할 청정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천연가스의 개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선박의 대명사인 LNG선의 건조량을 오는 2009년까지 현재 12척에서 15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이중 20만³가 넘는 대형 LNG선이 9척이나 돼 고부가가치를

넘어선 초고부가가치 선박 전문 건조 조선소의 이미지를 확실히 구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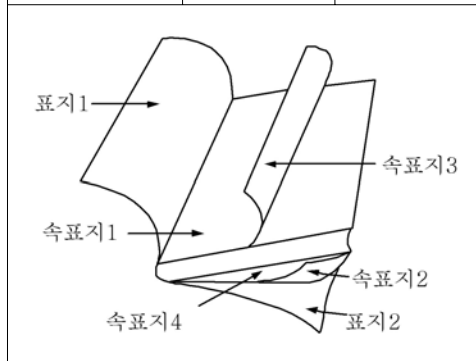
대우조선해양 선박사업본부장 고재호 전무는 “세계 최초 LNG-RV 개발, 21만³급 LNG선 설계표준 채택, 26만³급 LNG선 세계 최초 설계 등 탁월한 기술력과 건조능력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LNG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극 지방용 LNG선과 같은 새로운 선종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 수주한 초대형 LNG선은 길이가 315미터, 폭 50미터, 깊이 27미터로 210,100³의 LNG를 싣고 19.5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광고/회원사 소식 게재 안내 (042)828-6511~2

대한용접학회지 광고 게재료 안내

게재면수	필름규격 (A4)	광 고 료		
		1회 게재	색 상	흑 백
표 지 1	21×30cm	500,000원	칼 라	"
표 지 2	"	450,000원	"	"
속표지 1	"	450,000원	"	"
속표지 2	"	350,000원	"	"
속표지 3이후	"	300,000원	"	150,000원



- * 기타사항 *
- ① 6회(1년분) 게재시 10%할인 (표지1,2, 속표지1제외)
 - ② 광고필름 제작시 제작비 별도
 - ③ 기사식 단색광고는 15만원
- 광고문의 안내(042-828-6511)